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 사사기 10:10-16

-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자리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억압했습니다. 사사 시대 역사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듯,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차례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는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으니, 이젠 더 이상 날 찾지 말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상에게 가서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고, 다만 오늘은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는 진심에서 우러 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모두 제거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셔서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성을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절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되 오늘날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는 겸손한 기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15절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던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일단은 우리를 좀 살려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당장의 고통을 면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앴 것도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는 상관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인해 고통 당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12:10-20을 읽겠습니다.

❖ 사무엘하 12:10-20

- 10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 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 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 14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 17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 18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되다 함이라
- 19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회개의 모범이지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연이어서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 받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회개 기도의 진정성은 금식이나 통곡과 같은 정성이나 기도의 응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밋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신대로 다윗의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사실상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벌을 취소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후로 두번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아내를 빼앗기는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는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벌하셨지만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심으로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당장의 곤란을 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던 그 당시에는 자신들도 진심이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조차 속였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예전에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유괴범에게 살해 당합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동네에 있는 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되어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하면 될 것을 굳이 자기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감옥에 있는 유괴범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 습니다.” 유괴범도 감옥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용서 받아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활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갈거라고 주장했던 외국의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아예 회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 생활이 다 그렇듯 회개 기도에도 형식보다 진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두려워하기 보다, 그 죄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사는 것이 곧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는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정성이 없는 회개가 습관이 되느니 차라리 회개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성은 없어도 회개 기도라도 합니다. 그런데 입다에 이어서 사사가 되는 삼손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진심에서 우리나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라도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이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

어린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단 서로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게 하고 억지로 악수를 하던지 포옹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앙금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더라도 당분간은 잘 지내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전에 신학교 동기 강도사님 결혼식장에 갔다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다른 동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결혼식 후에 동기들끼리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같은 인간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수치스러워 견딜수가 없다”고 외치면서 뛰쳐 나가고 싶었지만 남의 결혼식에서 그럴 수도 없으니 껍참고 자연스럽게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특별히 서로 사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남아 있어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언젠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올 테니 그때가 되면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죄를 저지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절로 우리 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는 평생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행동이나 생각에 별 문제가 없어보이고 어차피 기도해도 또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크다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 일단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미처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을 읽겠습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기쁨이나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로 기뻐하고 감사할텐데 그런 상황도 안 주시고 일단 기뻐하고 감사하라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억지로 앉아서 눈 감고 시간 채우는 것을 바리새인의 외식이지 참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우리 생각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내 안의 감정들이 변화되면, 그 감정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양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해하려는 노력이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에 역행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 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의 의미나 앞뒤 맥락과는 상관 없이 이 구절을 통해 내가 어떤 감동을 느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거나 실천하기 싫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당연히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는 감동을 받고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성경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할 수 없다. 그때 그때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할 만한 것들을 나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내킬 때 실천하겠다. 신앙 생활은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 회개하고 싶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 36:22-28을 읽겠습니다.

❖ 에스겔 36:22-28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새 영과 마음을 주심으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토록 순종하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포로로 사로 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율법을 지킬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시키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역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십니다. 거룩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다른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없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회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딱히 용서를 빌만한 죄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역지로 몇 개 찾아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하나, 기도해봐야 또 다시 죄 지을 것이 뻔한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예배에 앞서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형식적인 회개를 진심어린 참회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기도가 조금 막혀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주는 참된 위로와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딴 생각이 들더라도 정한 분량만큼 기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하며 원치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을 찾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 질문들

1.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행동을 취하려는 노력을 통해 마음까지 변화된 경험이 있나요?
2. 마지못해, 힘겹게 감당하던 일들을 꾸준한 인내와 훈련을 통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 것이 있나요?
3. 심령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